

어촌관광 사업 본격 개발

2009년까지 총 4,700억원 투입 3개 모델 24개소 개발 후보지 확정

해 양수산부는 오는 2009년까지 모두 4천 7백억원을 투입,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 관광사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다기능어항(2모델) 개발 후보지 선정에 이어 어촌·어항복합공간(1모델)과 어촌 관광단지(3모델) 개발 후보지를 각각 선정하여 지난 12월 15일 최종 발표하였다.

1모델 후보지는 인천시 강화군 어유정항, 울산시 북구 정자항, 강원도 강릉시 안목항, 전남 강진군 마량항, 경북 포항시 양포항,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항 등 7곳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지역에는 1개소당 150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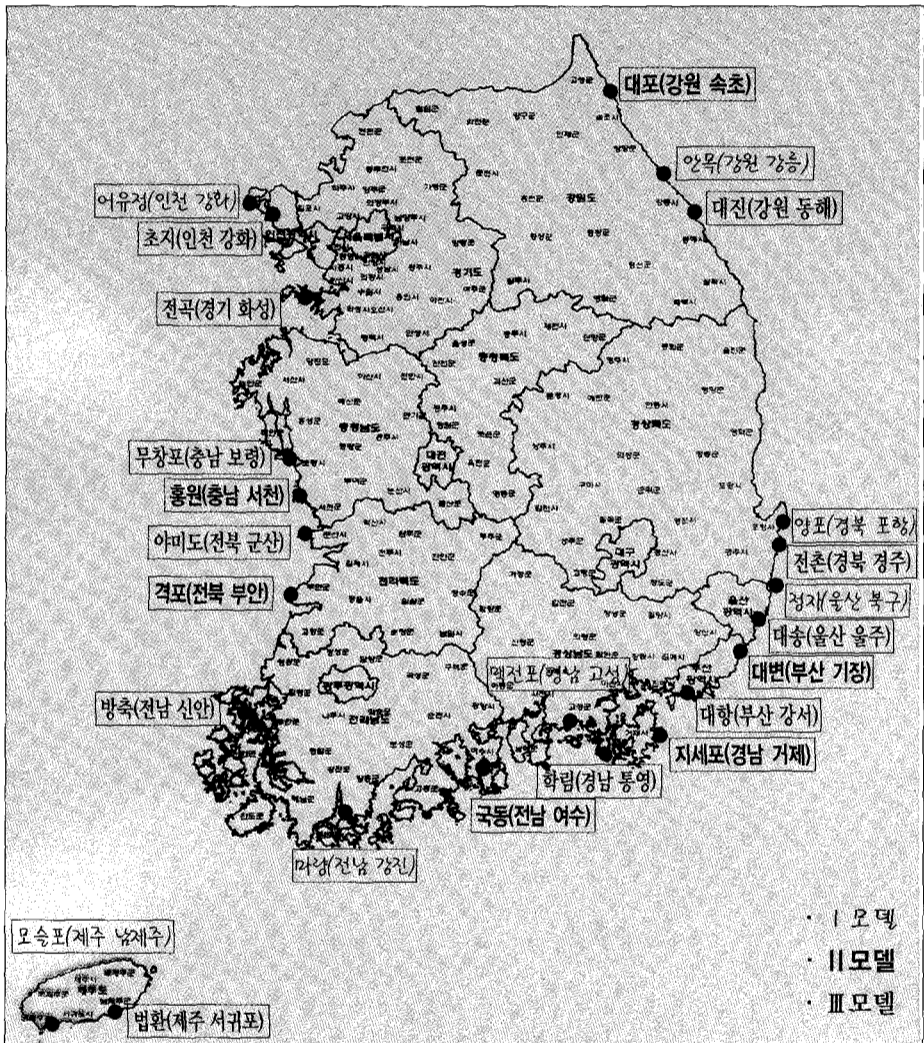
3모델 후보지는 부산시 강서구 대항, 인천시 강화군 초지, 울산시 울주군 대송, 경기도 화성시 전곡, 강원도 동해시 대진, 충남 보령시 무창포, 전북 군산시 야미도, 전남 신안군 방축, 경북 경주시 전촌, 경남 통영시 학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 등 11개소가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1개소당 6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10월 발표된 2모델은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 전남 여수시 국동항, 전북 부안군 격포항,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등 6개소로 개소당 500억원이 투자된다.

이로서 지난 5월 수립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의거 개발이 추진된 3개 어촌 관광모델 24곳의 선정이 완료되었다.

해수부는 금년내에 1모델 마량항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범발주하고, 3모델 무창포, 대진은 기본계획을 시범 발주하여 '0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3모델의 개발방향은 지역별·해역별



<어촌관광 I·II·III 모델 선정지역 현황>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지역은 관광, 명승지,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관광특화체류형으로, 서해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휴식, 문화, 어촌체험공간형으로, 남해지역은 어업체험 및 해상관광형 위주로 개발하며,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자치단체 및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어업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상대적 평가에 의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상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 사업의 추진성과 및 WTO-DDA, FTA 등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재편 방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